

## 사랑의친구들 20년, 7천여분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내년이면 사랑의친구들이 스무살이 됩니다.

스무살 성인이 되기까지 7,293분이 바자와 떡국나누기 등 우리 활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봉사를 통해 얼굴을 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지만 이십년이 가까워 오도록 한번도 뵈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1998년부터 19년간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김남훈, 김장곤, 김종량, 김홍배, 남창우, 박종대, 송석호, 안종길, 오차환, 이기정, 이철우, 조기제, 조남철, 조성민, 차순걸 님 그리고 사랑이 담긴 상품권을 보내주신 조남만 후원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후원자들 중에는 자신의 자식마냥 한 어린이에게 매월 오만원의 금액을 전해주는 '개별아동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남편의 조의금이 따뜻한 일에 쓰일 수 있기를 희망한 후원자, 첫 직장에 취업하여 기쁨으로 나눔에 동참한 후원자,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자녀가, 또는 형제와 남매가 함께 참여하게 된 후원자들까지 후원의 계기와 동기도 다양합니다.

올해 열 다섯 분의 후원자 김경란, 김경희, 김병준, 김수정, 김지연, 김철용, 김흥기, 노영혜, 성현정, 이순례, 이아정, 이영숙, 인재근, 정명화, 최병철 씨와 1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미래회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스물 다섯 분과 4개의 단체에서 모두 104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세명의 어린 친구들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최병철 후원자를 만나 보였습니다.



이중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아이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병철 씨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특히 운동에 소질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꿈을 키우지 못하는 어린이를 돕고 싶어하여, 한 초등학생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간 탁구 국가대표를 꿈꾸며 성장한 어린이는 현재 고3이 되어 탁구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 누구도 제가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제 처음으로 우리 큰딸에게 이야기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보낸 마음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면 그것이 보람이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도 3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변함없이 후원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최병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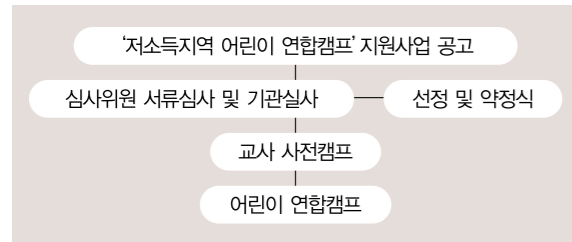
\*\* 사랑의친구들은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회보를 통해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 산과 바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우리들 캠프

##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후원한 여름캠프에 689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 연합캠프는
- \*\* 다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캠프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 어린이들은 평소에 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다움을 회복하고 자존감과 협동심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과 집단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성장 캠프입니다.
  -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연합체를 최종 선정하고 교사들을 위한 사전캠프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공모사업



사랑의친구들에서는 2004년부터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연합캠프는 지역아동센터가 개별로 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5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서 진행합니다.

### 선정 방법

연합캠프 공모사업은 공모 후 접수 마감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접수된 서류들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연합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2차 심사 후 최종 선정합니다.

### 연합캠프 약정식

지원이 확정된 연합체 대표와 담당자가 약정식에 참석하여 지원금에 대한 증서전달과 함께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식은 지원금 사용 수칙과 원활한 캠프 진행을 위한 설명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교사 사전캠프

연합캠프를 준비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교육과 생활지도, 보호자와의 상담, 센터 관리, 행정 업무 등 과도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치유적인 캠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고자 연합캠프를 준비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캠프를 진행하여 먼저 캠프의 참여자로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과 유익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연합캠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몰두하던 일상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아보게 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월 31일 사랑의친구들에서 열린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약정식'에 참석한 선정된 연합체 대표자들.



◀ 감정카드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친구들과 마음 나누기

▶ 자연물을 수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에 표현하고 친구에게 마음 전달하기



▲ 나쁜 마음을 격파해보자

▶ 캠프에 공동체 놀이가 빠질 수 없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먼저!  
나를 먼저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

나쁜 습관을 격파할 때 진짜로 나의 나쁜 습관이 없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없어지면 좋겠다. 또 협동게임에서 내가 못하는 다리 찢기를 해서 불안했는데 막상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찢어서 큰 깨달음을 느꼈다. 안해보는 것은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해보지 않고 안될거란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볼 것이다.

-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시지다 어린이

반석·사랑아이·열린·전농  
천은·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어린이 100명  
강원 원주  
청소년수련원에서

서울  
동대문구방과후연합회  
**내 안의  
감성열매가  
열렸어요~**

갈현·광현·꿈이있는푸른학교  
벤엘·조은아이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9명  
경기 양평 셀라리조트에서

서울 은평구  
악기 소풍가요~!  
**악기야~  
소풍가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조화를 이루어 보고 연합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기. 음악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보자.



◀ 악기 연습, 연습 또 연습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 음악회 끝난 후 모두 함께 찰칵~

▶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음악캠프를 가는데 사랑의친구들이 후원해주어서 이런 재미있는 캠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둘째날 했던 작은 음악회도 하는데 되게 떨리고, 손목이 아팠다. '내가 실수를 하면 어찌지?' 라는 생각도 머리에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레슨과 합주 뿐만아니라 딱지치기, 물총놀이, 보물찾기, 스틱놀이도 있어서 더 즐거웠다.

- 갈현지역아동센터 최수현 어린이

인천  
힘을 내요 슈퍼파워~

## 자연을 느껴봐

별과 바람과 공기와 사람이 공존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 산속의 식물로 식물도감을 만들어 보기

▼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소리를 느끼며 리프팅



▲ 종이 비행기에 감사한 마음 써서 날려보자



◀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자리모양 만들기! 비로 인해 아쉽게도 실내에서...

캠프 이틀째 되던 날 8월 8일, 1학년 아동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 오색약수터에 갔다. 약수를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으며, 약수의 맛은 우리가 늘 마시는 물맛과는 다른 이상한 맛이니 놀라지 말고 마셔야 한다고 미리 설명해 주었다. 그랬더니 건강에 좋다는 말에 그 이상한 물맛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마시는 것이었다. 그 중에 서현이의 질문이 더 놀라웠다. “센터장님! 우리 할머니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 힘들어 하세요. 이 물을 드시면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냉방병에 고생하시는데 나올 수 있어요?”라고 질문하였다. “그럼 드시면 아주 좋지”라고 답했다.

서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약수를 꼭 떠가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현이를 위해 물이 조금 들어 있었던 용기의 물을 비우고 오색약수를 받아 주었더니 가슴에 꼭 안고 너무 좋아했다.

- 선학동지역아동센터 이재희 선생님

가온·선민아이들세상·선학동  
선향·위즈키즈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32명  
강원 설악산 오색그린야드에서



▲ 조원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미션을 완수 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팀력훈련



◀ 친구와 함께하는 숲속여행



▶ 협동으로 이루어진 우리들만의 레크리에이션

‘함께’라는 공동체 속에서 ‘방학’이라는 편안한 시간, 친구들과 놀이, 즐거움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열어보자.

팀력훈련을 하여서 여름 더위가 짝~ 다 날아갔다. 귀신이 조금 무서웠고, 설레였고 여름방학을 최고로 보냈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추억도 쌓고 모르는 아이들과 센터랑 함께 하니 더욱 재밌고 행복하였습니다. 알차고 즐거웠습니다!

- 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이산하 어린이

늘빛·열린학교·예품·우리·파랑새  
흥남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40명  
전북 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 군산  
아이들이 리더(leader)가 되는 울타리  
‘아. 리. 울’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놀이를 통한 힐링캠프 ‘아리울 개복쟁이 캠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물놀이와 장기자랑에 나간 것과 보물찾기다. 그리고 모둠끼리 한 활동은 모두가 협동을 해 주어서 고마웠고, 모든 센터와 함께 하니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니 너무너무 아쉬웠다. 나중에 모든 센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 증평지역아동센터 김수아 어린이

무지개·사평교회  
온누리·증평  
행복이 가득한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3명  
충북 영동  
송호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북 증평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연합회

## 꿈을 찾아가는 농촌아이들의 리더십 점핑캠프!!

또래 친구들과의 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리더십 덕목을 체험해 보고 나만의 잠재된 리더십을 발견해 보는 시간.



◀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통해 친구를 찾아보고 알아가 보자



◀ 물놀이장에서의 수상활동과 야외서바이벌을 하며 정해진 규칙안에서의 생존과 도전에 기초한 리더십을 실천해 보자



◀ 나만의 비전 선언식, 나의 리더상

전북 익산  
온새미로 연합공동체

## 내 마음의 빨간 신호등!

남중·늘감사·미소·비전·영재  
오산·옥야·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45명  
전북 진안 대광수련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풀어내는 용기를 갖고, 즐거운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 기쁜일, 슬픈일, 고민거리를 종이에 적어 빨간 우체통에 넣어보자



◀ 우체통 이야기들을 모아 푸드재료를 다양한 모양 만들기



▲ 못판을 향해 마음의 상처를 힘껏 날려버려

사랑의친구들이 직접 찾아가 본 캠프  
“온새미로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온갖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마니또에게 예쁜 손수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지런히 자연물을 채취하고 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풀잎, 꽃잎 하나하나 채취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즐겁게 뛰어놀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의친구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숙소를 여기에 잡은 이유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자연만 가득해서 골랐습니다. 자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막화 된 아이들 가슴이 젖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캠프를 통해 한층 성장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 사랑의친구들 김은주 선생님

# “배워서 애들 주자” 공부방 교사 사전캠프

##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강원도 청태산에서 2박 3일 진행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아동센터 교사 사전캠프’는 올해 6월 28일~30일 지역아동센터 교사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청태산 국립형성숲체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전캠프는 2017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를 준비하는 연합체의 교사들과 서울초청행사에 함께 했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배워서 애들 주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7년 교사 사전캠프에 참석한 교사들은 여름방학에 진행할 놀이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갖고, 캠프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교사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강원도 숲체원에서 청태산의 푸르름과 청량감을 느끼며 숲길 걷기, 숲속에서의 명상 등을 통해 그동안 많은 업무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2박 3일의 마지막 날은 깨끗한 동해의 해변, 찻집, 수목원 등 곳곳을 다니며 바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여유를 누리고 휴식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❶ 시연프로그램을 마친 후 모두 모인 선생님들의 모습
- ❷ 숲길 걷기 전 햇살아래에서 몸풀기
- ❸ 숲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서로 마사지 해주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고 여기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어 무척이나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어? 되게 기발하네? 저런 거 우리 센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내시는 거 보면서 동지애도 느끼고 또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의친구들이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 주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준 것 같아 고맙습니다.

- 광현지역아동센터 송재화 선생님

미리 한번 해 볼까요? 캠프를 위해 준비중인 프로그램들을 교사들이 먼저 체험해 보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단합하면 우리!  
다리찢기



구성된 조의 사람들의 다리를 찢어 연결해 가장 멀리까지 발이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조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게임에 임해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전남 화순

친구야  
너의 꿈은 뭐니?



투명 아크릴판을 상대방 얼굴에 대어 선을 따라 그리면서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 어색함을 깨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놀이이다.

서울 은평구

나를 이겨라!  
딱지치기



가위, 바위, 보를 하고 난 후 이긴 사람이 딱지를 쳐서 넘기면 스티커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넘어가지 않는 딱지 잡는 방법, 상대방 딱지를 넘기는 기술과 집중력을 배운다.

전북 군산

행복한 에너지  
손으로 하는 유희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주보며 손뼉 짝짜꿍을 1-2-3-2-1-2-3 순서로 반복하고 틀리게 되면 틀린 사람끼리 짝을 지어 손뼉 짝짜꿍을 계속 하는 게임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섞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인천

떴다 떴다  
비행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을 적은 종이를 비행기를 접어 소망을 담아 바람에 날려본다. 조금 어색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북 익산

음식으로  
마음 표현하기



학업스트레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등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음식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소감 및 느낌을 전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충북 증평

높이 높이  
더 높이~  
마시멜로성 쌓기



조별로 한정된 재료(마시멜로, 스파게티면, 실, 스카치테이프)로 가장 높은 성을 쌓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협동심, 단결력을 기를 수 있다.



“이제 어디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서울에 가봤다고!”

### 전남 화순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신나는 서울체험

‘서울초청행사’는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 나들이가 힘든 농·어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로 올해도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이서희)이 후원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화순의 5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3명이 서울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곳으로 2박 3일의 일정을 꾸몄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작은 읍 소재지에 위치한 낙후된 시골마을로 신청 아동 70명 중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50%를 차지하고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인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을 돌보거나, 몸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며 하루하루가 고단한 생활을 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아동 설문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는 전체 70명중 55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아동의 경우도 집안 애경사에는 참석했으나 즐거운 여행이나 배움을 위한 서울탐방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 전남 화순 한우리지역아동센터 김명숙 선생님



올해는 전남 화순군의 꿈나무·신화·엘리트·큰사랑·한우리지역아동센터 63명의 어린이들이 4월 19일~21일, 2박 3일동안 서울을 방문해 즐거운 서울 나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서울의 중심부에 흐르고 있는 청계천, 늠름한 이순신 장군과 인자한 세종대왕이 있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 임금이 살았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여는 모임을 열어 처음 만난 친구들과 인사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서울초청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을 위해 사랑의친구들 김성애 운영위원장과 박희양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둘째날, 첫날의 설렘을 뒤로 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위인들과 이름 없는 군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며 숙연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책에서만 보았던 다양한 유물들을 보며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어린이박물관에서 금관과 궁중 옷을 입어 보고, 청자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역사와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63빌딩 탐험, 새로 단장한 아쿠아리움에서 인어공주도 만나고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울 나들이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던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사파리에 가서 인사하는 곰도 보고, 소문으로만 들어 본 유명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함박웃음을 짓는 어린이들. 항상 그 웃음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사랑의친구들이 지원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탐방기 ①

# 서울 동대문구 방과후교실 3인방을 만나다

반석방과후교실

이혜경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작은 교실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죠”

원래 여기가 어린이집과 같이 통합보육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맞벌이하느라 아이를 봐줄 수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기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대로 된 공간도 없고 선생님도 없이 10명의 어린이들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어린이집과 분리해 시설을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05년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의 어린이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반석방과후교실은...

2013년 연합캠프를 시작으로 사랑의 떡국나누기, 간식나누기, 종이접기교실 등 사랑의친구들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7년 된 교회 옆 작은 공간을 빌려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거라고 믿어요”

저희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책이나 자료들을 애기해 주면 아이들 수만큼 주문하는 식으로 진행하

고 있어요. 다 읽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꿔 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 도서 목록이 나오는데 엄마들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깐 도서 구입을 다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만이라도 가능한 학교에서 지정해준 걸로 구입해서 많은 책을 읽히고자 합니다.”

열린방과후교실

임정심 선생님



“사랑의친구들에서 우리 아이들 문화체험은 다 해결해 주시네요”

방과후교실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아요. 하지만 방과후교실 운영시스템이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에서 지원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해마다 캠프를 신청할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2박3일 캠프는 쉽지 않아요. 사랑의친구들에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캠프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GKL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사랑의친구들 교사사전캠프에

열린방과후교실은...

결식공모사업, 책나누기, 피자나누기 등 사랑의친구들이 진행한 사업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세 개의 공부방 중 가장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전동2동 동사무소 뒤편 노란색 건물 2층, 2개의 작은 방에서 20명의 아동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연합캠프, 교사 사전캠프 등 사랑의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대문의 3개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반석, 열린,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은 특이하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방과후교실의 형태로 사랑의친구들과 지속적으로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3개의 공부방을 찾아가 선생님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녀왔었잖아요. 알려주신 사이트를 보다가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아이들을 신청해줬는데, 선정돼서 부모님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진짜 사랑의친구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문화체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음악이 있는 미래를 꿈꿉니다”

저희가 오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악기는 플룻,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요. 음악회도 열고 있고요. 벌써 6년차 접어들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시키진 않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만 하라고 해요. 대신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사실 후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어려워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본인 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책임감이 생겨서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음악 프로그램이 좋다는 걸 아 니한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네요.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조아영 선생님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이 펼쳐요.”

저는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집에서 12년 근무를 했었어요. 원래 아동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닿아서 방과후교실에 오게 됐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많이 인식하셔서 프로포절을 내도 잘 안돼요. 물론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어려움을 당면 하면 저는 조바심이 나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없어질 것 같은데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오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힘들게 했던 아이가 잘 자라준 것이 제일 감사하지요”

저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중학생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친구들도 많으니깐요. 저 나름대로는 이 아이들이 중학생, 성인이 돼서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여기 다닐 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죽고 싶다. 자해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하고 함께 아이와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이가 졸업을 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잘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학생이라 여기 오는 시간이 없지만 방학 때는 주눅주눅 와서 봉사활동도 해요.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은...

2015년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하면서부터 사랑의친구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진행된 '사랑의 떡국나누기'에 아이들이 성금을 모아 보내주는 등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34명의 어린이들이 1, 2층을 나누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200회 운영위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장서는 사랑의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7월 18일 제20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999년 4월 8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래로 18년이 지나 200번째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매달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랑의친구들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윤장순 초대 운영위원장, 인재근 2대 운영위원장에 이어 지난 2월부터 김성애 이사가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빛섬 채빛퀴즈에서 열린 200회 운영위원회에는 특별히 이희호 명예회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8년 동안 200차가 되도록 사랑의친구들을 잘 이끌어 온 전 현직 운영위원들의 노고를 서로 치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성인숙 위원, 이종욱 위원, 김성애 운영위원장, 김성재 회장, 이희호 명예회장, 김정열 기획자문위원장, 윤장순 전 운영위원장, 윤현봉 위원, 이정원 사무총장

사랑의친구들 제40차 정기 이사회

8월 23일, 사랑의친구들 제40차 정기이사회가 사랑의친구들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사업 및 재정보고와 하반기 사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스무 번째를 맞이하는 ‘2017년 사랑나누기 바자 한 마당’은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에 진행될 ‘2018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를 2018년 2월 8일(목)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별아동 후원

개별아동후원은 후원자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매월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아래는 후원받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전해 온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중2가 되어 부적 학업에 관심이 많아진 승민이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부에 필요한 문제집과 문구류를 꼽았습니다. 마침, 얼마 전 승민이와 문구류를 함께 구입하던 날이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승민이가 후원자님께서 주신 장학금으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사도 되냐며 물어보곤, 직접 예쁜 카네이션 화분을 두 개 골랐습니다. 한창 사춘기 나이라서 무뚝뚝한 승민이가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석남지역아동센터 이채은 선생님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를 쉽게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2007년부터 미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주 1~2회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영어에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친구들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어린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영어보드게임, 영어사전 등 다양한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비를 3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전국 40개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장학금

10년 동안 진행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랑의친구들에서 그동안 영어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사교육 없이 꾸준히 좋은 영어 성적을 올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3월부터 2명의 학생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문제집 및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해 자신이 세운 목표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선형이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목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져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자신의 취약부분을 잘 알게 되어 현재 문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열심인 선형이를 위해 학원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러지 못해 항상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께서도 선형이가 장학금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기회를 주신 사랑의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또 센터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고 보려고 했는데 선형이가 공부를 하니 동생들도 TV를 보지 않고 잠깐이라도 책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형이 자신에게도, 그 주변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이지미 선생님

사랑의 간식나누기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국제선에 실렸다가 개봉되지 않고 나온 과자, 비스킷, 초콜릿, 컵라면 등을 모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씩 간식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년간 총 16,188명의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올 하반기(7월~12월)에는 새로이 전남 화순군의 꿈나무, 신화, 엘리트, 큰사랑, 한우리지역아동센터와 서울 열린방과후교실을 선정해 어린이 128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간식 외에도 기업에서 후원한 다양한 물품들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먼저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아이들을 대표하여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내식을 보내주셔서 공부하는 도중에도 톡툰이 먹고, 주말에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뿐만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기내식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에 먹어본 적 없던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양을 주셔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먹어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즐긴다면 지금의 경험이 새록새록 피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런 값진 경험은 쉽게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이 승무원인데 이번 경험으로 제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김다희 어린이

페이스북 개설

8월 4일, 사랑의친구들도 활동 소식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회원님들께 전하고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페이스북 계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랑의친구들'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facebook.com/folove831](http://www.facebook.com/folove831)을 입력하면 사랑의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사랑의친구들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내용들이 페이스북과 사랑의친구들 홈페이지([www.friends.or.kr](http://www.friend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금융니눔재단 어린이 뮤지컬 정글북·서울시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음악회 상생

7월 7일~21일, 하나금융니눔재단에서 국립중앙 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진행된 '정글북'에 5개의 지역아동센터 70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뮤지컬 정글북은 실감나는 대형코끼리와 정글 속 동물들의 움직임과 특색을 살린 안무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8월 17일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초청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청소년음악회 상생'을 2개 지역아동센터 40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였습니다.



해금협주곡, 가야금협주곡 등 우리 음악의 아름다운 멋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글북을 보고...

효성사랑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감동적이었는지 매 장면마다 감동이 되어 박수를 치는 모습에 저 또한 감동이었고 흐뭇했습니다.

센터에 차량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늦은 시간까지 관람을 해서 많이 피곤할텐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집중하며 관람하는 모습, 관람매너도 잘 지켜 한번 더 아이들에게 칭찬 또한 아끼지 않았답니다.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 저에게 더 보고 싶다는 계속 이야기 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만들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 효성사랑지역아동센터 황진아 선생님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 바자에 함께 해 주세요.



- \* 물품판매, 행사장 정리 등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미리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이 있다면 아나바다코너로 보내주세요. 아나바다코너인 '코끼리장터'에 모인 물품은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되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물품은 사랑의친구들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9길 10 / 02)734-4945~7



사랑의친구들

# 10월 28일 바자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달려온 20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자리에서 열리는 나눔 축제

2017년 10월 28일(토) ~ 29일(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 ♥ 저렴한 생활용품
- ♥ 믿고 먹는 우리 농산물
- ♥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해외특산품
- ♥ 새 주인을 찾아주는 아나바다장터
- ♥ 따끈따끈 맛난 먹거리 장터
- ♥ 저명인사들의 기증품 경매
- ♥ 행운권 구입으로 아이들 후원과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를 동시에

후원 : 글로벌어린이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서울시 문의 : 사랑의 친구들 734-4945~7

※바자의 수익금은 소외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